

대학생의 무조건 자기수용이 성평등의식에 미치는 영향: 다양성 수용의 매개효과

권 영 응[†]

강릉원주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조건 자기수용이 성평등의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다양성 수용의 매개효과 검증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4년제 대학에 재학생 723명(남: 405명, 여: 3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분석을 위해 상관분석과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회귀분석 절차를 사용하여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조건 자기수용과 다양성 수용, 성평등의식 간에는 모두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무조건 자기수용과 성평등의식의 관계에서 다양성 수용의 매개효과는 부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 후속연구를 위한 제한점을 제언하였다.

주요어 : 무조건 자기수용, 다양성 수용, 성평등의식

[†] 교신저자: 권영응, 강릉원주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Tel : 033-649-7932, E-mail : kwonhero@hanmail.net

2018년 우리 사회는 미투운동이 공론화되며 감추었던 많은 사건들이 드러났다. 여성의 인권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했지만 미투운동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젠더 폭력에 대한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다양한 법률(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매년 폭력예방교육(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이 실시되고 있지만 젠더 폭력에 대한 뉴스는 연일 계속되고 있다. 2019년 한국의 성평등 지수는 153개국 중 108위를 기록하였다(한겨레 2019. 12. 17.). 이처럼 교육과 의식의 변화가 강조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사회 변화가 미흡한 이유는 사회구조 속 성불평등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성평등(gender equality)’이란 남자와 여자가 성적으로 차별을 받지 않고 사회적으로 동등하게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평등은 인권 보장을 통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잠재력 계발, 그리고 그 결과로부터 혜택을 받기 위하여 남녀가 동등한 조건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김재인 외, 2007). ‘성평등의식’은 성역할 고정관념을 가지지 않고 성차별적인 행동에 반대하며 사회의 성차별을 수정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지지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김양희, 이수연, 2002). 성평등의식은 사회적, 문화적, 시대적으로 다양하게 변화되어 여러 변인들이 성평등의식에 영향을 미쳐왔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전반적으로 성평등의식이 더 높았으며(김양희, 이수연, 2002), 자신의 성에 만족하고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성평등의식이 감소하는 경향성을 나타냈다(홍기원, 김명소, 한영석, 2003). 사회문화적 특성

또한 영향을 미치는데, 개인주의적인 문화를 가진 사회는 대체로 성평등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수경, 정진경, 2003). 남녀의 성평등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는 것은 성평등의식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며 효율적인 접근법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홍기원, 김명소, 한영석, 2003). 성평등의식은 성태도, 성지식, 성적 자율성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으로 확인된다(김연제 등, 2016). 성평등의식이 높을수록 생의 의미감이 높고 우울감이 낮았으며(이경순, 정성진, 2006) 자아효능감이 높고 자녀와의 관계가 촉진적이었다(최경아, 김혜원, 2016). 이처럼 성평등의식은 사회적, 개인적 차원에서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성평등의식 향상을 위해서는 ‘성 고정관념’과 여성에 대한 편견, 혐오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편견과 혐오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문화와 구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헤럴드경제 2018. 5. 30.). ‘성 고정관념’은 오랜 기간 사회 속에서 남성은 주체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여성은 보조적이고 정서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학습된 것을 말한다. 또한 ‘성 고정관념’은 남성과 여성이 생물학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사회적 역할이나 능력, 관심 등 다른 많은 측면에서도 서로 다를 것이라고 믿는 것을 말한다(심미혜, Endo Yu Mi, 2013). 이러한 ‘성 고정관념’이 자아와 남성, 여성의 판단에 반영되는 양상은 자기 긍정성과 상호 작용하여 영향을 미친다(조혜자, 방희정, 2004). 자기 긍정성이란 자기수용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자신과 세상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말한다(박지혜, 박종대, 2019).

Rogers(1942)는 자기감정과 동기, 사회적, 개인적 경험들을 있는 그대로 지각하고 수용하는 능력을 ‘자기수용’이라고 말하였다. 이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독립된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무조건적 자기수용’은 개인이 지적이고, 정확하고, 유능하게 행동하는 그렇지 않은 자신을 수용하고, 타인의 인정과 존중, 사랑과 관계없이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Ellis, 1977; 임전옥, 장성숙, 2012, 재인용). 무조건적으로 자기를 수용하는 사람들은 타인의 관심과 인정, 평가와 관계없이 인간으로서 자신의 가치를 믿고 있기에 타인의 평가나 인정으로부터 자유롭고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경험한다(신수진, 최준식, 2002). 안신호, 박미영(2005)은 능력은 높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과, 능력은 부족하지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자기수용이 자존감에 대해 정서적으로 중요한인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나 부족한 사람 모두 자기수용 여부에 따라 자존감이 다르게 나타났다. 자기평가에 따라 개인의 자존감이 결정되고, 나아가 개인의 행복이 결정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자기수용은 안정적인 정서적 행동적 건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Ellis & Robb, 1994). 자기수용을 잘하는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며, 자신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포함하여 자신의 다양한 측면들을 인식하고 수용하여 과거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끼고(Ryff, 1989)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크게 느낀다(김금미, 2010). 김경미, 최승원, 정인철(2014)은 무조건적 자기수용이 정신건강에도 중요한 심리적 변인이라고 하였다. 무조건 자기수용의 수준을 높이는 것은 정서적, 심리적 문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사회불안을 감소시키는 변인이 되기도 한다(이슬, 김혜란, 2018). 하지만 무조건 자기수용이 긍정적 특성이라는 연구결과들과 달리 몇

몇 연구에서는 극단적인 자기수용은 건강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지나친 완벽주의나 권위주의적 성격의 경우 타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에게 무조건 자기수용은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되어 지각된 자기상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이들의 무조건적 자기수용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긍정적 자아를 과장되게 수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이현미, 하정희, 2015). 권위주의 성격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에 있어서도 무조건 자기수용이 다른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하정희, 2015). 이는 자신을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인다고 해도 이것이 개인의 방어적인 태도를 반영한 것(임전옥, 장성숙, 2012)이라면 자신을 수용하는 것이 오히려 부정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자신을 객관적으로 이해하여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대체로 긍정적으로 여기는 경향성은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에도 영향을 준다(하정희, 2015). 자기수용은 타인수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자기에 대한 호의적이고 수용적인 측면이 타인에게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다(임전옥, 장성숙, 2012). 즉, 이러한 자기수용적 태도가 다양한 타인과 문화, 가치관에 대한 수용으로 확장된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에 대한 태도는 다양성에 대한 수용적 태도를 말하는데 ‘다양성’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여러 형태로 늘 존재해 온 인간의 사상 중 가장 오래된 개념 중 하나로 모든 곳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Wood, 2003). 인종 및 성차를 포함하는 문화적 포용, 다문화주의의 내용으로 시작한 다양

성 개념은 제도적 지원으로 발전의 기회를 통해 주도적 이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이효선, 2014). Milliken과 Martins(1996)은 다양성을 관찰 가능한 것과 관찰이 어려운 것으로 분류하였다. 관찰이 가능한 다양성은 외적으로 보이는 인종, 민족, 나이, 성별 등을 말하고, 관찰이 어려운 다양성은 교육수준, 능력, 조직 근무 기간, 사회경제적 배경, 그리고 성격, 가치관 등을 말한다. 이종일(2010)은 다양성을 일상적 의미의 다양성, 이종성(異種性) 의미의 다양성, 상호의존적 의미의 다양성, 평등 차원의 다양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 공정성을 보장하는 적극적 의미의 다양성으로 분류하였다. '다양성 수용'은 조직구성원으로서 개인이 자신과 다른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차이에 대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심리적 상태(Harrison, Price, Gavin & Florey, 2002)에 근거한 주관적 태도를 말한다(성상현, 2005). 개인이 다문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개방적으로 공감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문화와의 접촉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특성이 필요하다(김미진, 2010).

오늘날 우리 사회는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노동자, 새터민, 유학생, 이민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다양한 사람들의 증가는 다양한 문화와 생각, 가치 판단을 갖게 한다. 사회적, 시대적 변화에 따라 다양성에 대한 수용과 존중이 주목받고 있지만 이러한 변화에 대한 인식은 세대별로 아직 차이가 있다.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여성가족부, 2019)를 보면 2018년 다문화수용성 지수가 2015년에 비해 청소년은 높아지고 성인은 낮아져 성인과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격차는 더욱 커졌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의 차이는 세대별 같

등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은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자체의 실체로 존재하여 사회생활 전반에 영향력을 주게 된다(박수미, 정기선, 2004). 성숙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종, 민족, 문화적으로 다원화된 상황과 함께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고, 가치 있게 여기며, 서로 존중하고 사회이념과 차별 없이 모든 개인의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노력이 중요하다(Troper & Weinfeld, 1998). 이러한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자란 대학생들이 성숙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양성과 성평등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 대학생들의 다양성 수용과 성평등의식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성평등의식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개인의 성장 배경, 교육, 사회활동 경험(이성과 함께하는 직장, 단체생활) 등의 요인으로 이루어졌다(정병삼, 2020). 하지만 성평등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외적 요인뿐만 아니라 내적인 요인에 대한 탐색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무조건 자기수용과 성평등의식의 관계에서 다양성 수용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대학생 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강원도에 소재한 C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설문지는 756부가 회수되었고 응답이 누락되었거나 불성실한 33부를 제외한 723명의 설문지가 본 연구 자료로 사용되었다.

측정도구

무조건 자기수용

Chamberlain과 Haaga(2001)가 개발하고 추미례와 이영순(2014)에 의해 번안, 연구된 무조건 자기수용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5문항 7점 척도로 '존재로서의 자기수용', '판단분별로부터 자기수용', '피드백으로부터 자기수용' 등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존재로서의 자기수용'은 고유한 인간 존재로의 수용을 의미하며 '판단분별로부터 자기수용'은 성공과 실패, 능숙함과 미숙함, 가치 여부와 같은 판단과 상관없이 자기를 수용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피드백으로부터 자기수용'은 칭찬이나 비난과 같은 피드백과 상관없이 자기수용의 정도를 의미한다. 추미례와 이영순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77이며 하위 척도별 신뢰도는 '존재로서의 자기수용' .73, '판단분별로부터 자기수용' .69, '피드백으로부터 자기수용' .54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존재로서의 자기수용은 .79, 판단분별로부터 자기수용은 .73, 피드백으로부터 자기수용은 .63이며 전체는 .77로 나타났다.

다양성 수용

다양성 수용의 측정은 Jehn(1999)의 분류에 따라 구분하고 김연미(2018)가 측정한 다양성 수용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3문항 5점 척도로 '사회범주 다양성 수용', '정보 다양성 수용', '가치 다양성 수용' 등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사회범주 다양성 수용'은 국적이거나 인종, 성별, 나이와 같은 사회적 차이를 가치 있게 여기고 이해하며 존중하고 배우려는 것을 의미하며 '정보 다양성 수용'은 지식이나 기술, 경험, 교육적 배경과 같은 서로

다른 정보에 의한 차이를 가치 있게 여기고 서로 이해하며 존중하고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 '가치 다양성 수용'은 조직의 목표와 미션에 대한 관점, 성격과 가치관에 의한 차이를 가치 있게 여기고 서로 이해하며 존중하고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 김연미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90이며 하위 척도별 신뢰도는 '사회범주 다양성 수용' .87, '정보 다양성 수용' .86, '가치 다양성 수용' .79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범주 다양성 수용은 .89, 정보 다양성 수용은 .92, 가치 다양성 수용은 .89이며 전체는 .96으로 나타났다.

성평등의식

성평등의식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수연, 김인순, 고재훈, 2018)에서 개발한 개정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의 축약형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자 축약형이 개발되었다. 축약형은 총 12문항 4점 척도로 '공적 영역에서의 성평등에 대한 태도', '여성의 권리요구에 대한 태도', '여성 성역할 규범에 대한 태도', '가족의 부계중심성', '가정에서의 성평등에 대한 태도' 등 6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이 검사는 1999년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의 개정판으로 원검사와의 상관관계수 $r = .91$ ($p < .01$)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으며 신뢰도는 .88이었다. 이 검사는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성평등의식이 낮은 것으로 측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성평등의식이 높음을 나타내기 위해 역코딩을 하였다. 그리고 신뢰도가 .40이하로 낮은 '가족의 부계중심성'의 2문항을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 '공적영역에서의 성평등에 대한 태도'는 .89, '여성 권리요구에 대한 태도'는 .86, '여성

성역할 규범에 대한 태도'는 .87, '남성 성역할 규범에 대한 태도'는 .76, '가정에서의 성평등에 대한 태도'는 .89이며 전체는 .93으로 나타났다.

분석방법

본 연구는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SPSS 18.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조건 자기수용과 다양성 수용, 성평등의식 간의 관계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무조건 자기수용과 다양성 수용이 성평등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회귀분석 절차에 따라 검증을 실시하였다. 넷째,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대학생의 무조건 자기수용이 성평등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성 수용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에 앞서, 독립, 매개, 종속 변인으로 선정된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매개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이 충족되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모든 독립변수는 VIF가 10이하

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Durbin-Watson 값은 그 수치가 2에 가까워 각 변수들의 독립성이 인정되고 회귀 모형 사용에 적합하였다.

결 과

무조건 자기수용, 다양성 수용, 성평등의식 간의 상관관계

주요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는 표 1과 같다. 분석결과 첫째, 무조건 자기수용과 다양성 수용 간에는 유의한 정적상관($r=.23, p<.01$)이 나타났다. 둘째, 무조건 자기수용과 성평등의식 간에는 유의한 정적상관($r=.20, p<.01$)이 나타났다. 셋째, 다양성 수용과 성평등의식 간에는 유의한 정적상관($r=.30, p<.01$)이 나타났다.

무조건 자기수용, 다양성 수용이 성평등의식에 미치는 영향

무조건 자기수용, 다양성 수용이 성평등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단순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표 2와 같다. 무조건 자

표 1.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 변인 | 무조건 자기수용 | 다양성 수용 | 성평등의식 |
|----------|----------|--------|-------|
| 무조건 자기수용 | 1 | | |
| 다양성 수용 | .23** | 1 | |
| 성평등의식 | .20** | .30** | 1 |
| 평균 | 4.27 | 3.94 | 1.72 |
| 표준편차 | .65 | .66 | .64 |

** $p<.01$

표 2. 무조건 자기수용, 다양성 수용, 성평등의식 간의 단순회귀분석

| 변인 | 종속변인 | B | S.E | β | R^2 | F |
|----------|--------|------|------|---------|-------|-----------|
| 무조건 자기수용 | 다양성 수용 | .226 | .037 | .225 | .051 | 38.444*** |
| | 성평등의식 | .197 | .036 | .201 | .040 | 30.420*** |
| 다양성 수용 | 성평등의식 | .289 | .035 | .297 | .088 | 69.715*** |

*** $p < .001$

기수용은 다양성 수용을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beta = .225, p < .001$), $R^2 = .051$ 로 무조건 자기수용이 다양성 수용에 대해 5.1%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 = 38.444, p < .001$). 그리고 무조건 자기수용은 성평등의식을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beta = .201, p < .001$), $R^2 = .040$ 로 무조건 자기수용이 성평등의식에 대해 4.0%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 = 30.420, p < .001$). 또한, 다양성 수용은 성평등의식을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beta = .297, p < .001$), $R^2 = .088$ 로 다양성 수용이 성평등의식에 대해 8.8%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 = 69.715, p < .001$).

무조건 자기수용과 성평등의식의 관계에서 다양성 수용의 매개효과

대학생의 무조건 자기수용과 성평등의식의 관계에서 다양성 수용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무조건 자기수용은 다양성 수용과 성평등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다양성 수용은 성평등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할 때 무조건 자기수용이 성평등의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다양성 수용이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다양성 수용이 무조건 자기수용과 성평등의식의 관계에서 매개효

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Baron & Kenny (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 절차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서는 3단계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단계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고 2단계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3단계는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을 동시에 투입하여 종속변인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 단계로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이와 함께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대한 영향 검증인 회귀분석 계수 값(β 값)이 2단계 보다 줄어들어야 한다.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상실되고 매개변인의 영향만 유의한 경우 완전매개를 나타내며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이 감소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유의할 때는 부분매개가 있음을 나타낸다.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 결과는 표 3과 같다. 1단계에서 무조건 자기수용이 다양성 수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_1 = .225, p < .001$). 무조건 자기수용이 다양성 수용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5.1%의 설명력을 가진다. 2단계 분석모형에서 무조건 자기수용이 성평등의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_2 = .201, p < .001$). 무조건 자기수용이 성평등의식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표 3. 무조건 자기수용과 성평등의식의 관계에서 다양성 수용의 매개효과(N=723)

| 단계 | 독립변인 | 종속변인 | B | S.E | β | R^2 | F |
|-----|--------------------|--------|--------------|--------------|--------------|-------|-----------|
| 1단계 | 무조건 자기수용 | 다양성 수용 | .226 | .037 | .225 | .051 | 38.444*** |
| 2단계 | 무조건 자기수용 | 성평등의식 | .197 | .036 | .201 | .040 | 30.420*** |
| 3단계 | 무조건 자기수용 다양성 수용 | 성평등의식 | .138 .258 | .035 .035 | .142 .265 | .107 | 45.222*** |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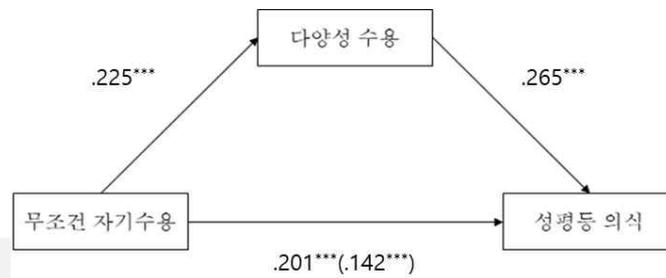


그림 1. 무조건 자기수용과 성평등의식의 관계에서 다양성 수용의 매개효과(N=723)

있으며 4.0%의 설명력을 가진다. 3단계 분석 모형에서 무조건 자기수용($\beta_3 = .142, p < .001$)과 다양성 수용($\beta_4 = .265, p < .001$)이 성평등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단계의 분석이 모두 유의하였고, 3단계 분석에서 매개변수인 다양성 수용을 투입한 결과 무조건 자기수용이 성평등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201에서 .142로 감소하였고 $\beta_2 > \beta_3$ 이면서 $\beta_3 \neq 0$ 이므로 부분 매개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각 단계별 설명력을 보면 1단계는 5.1%, 2단계는 4.0%, 3단계는 10.7%로 3단계의 설명력이 2단계에 비해 6.7% 증가하였다.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무조건 자기수용과 성평등의

식의 관계에서 다양성 수용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간접효과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Hayes(2012)의 Macro Process for Spss를 이용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사용한 부트스트래핑 표본 수는 10,000번이고 매개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하기 위해 95% 신뢰 수준을 사용하였다. 이때 간접효과에 대해 추정된 95% 신뢰구간으로 유의성을 판단하게 되며, 신뢰구간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으면 매개효과는 .05 수준에서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서영석, 2010). 다양성 수용의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매개효과의 하한값은 .036, 상한값은 .084로 95% 신뢰구간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4. 다양성 수용의 매개효과 검증 Bootstrapping

| 매개경로 | 매개효과 | | | |
|------------------------------|--------|----------|--------|------|
| | effect | Boot S.E | 95% CI | |
| LL | | | UL | |
| 무조건 자기수용 → 다양성 수용 → 성평등의식 | .058 | .012 | .036 | .084 |

CI=confidence interval(신뢰구간); LL=lower limit(하한계); UL=upper limit(상한계)

논 의

본 연구는 무조건 자기수용과 성평등의식의 관계에서 다양성 수용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조건 자기수용, 다양성 수용 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무조건 자기수용과 다양성 수용 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r=.15, p<.01$), 이러한 결과는 자기수용과 타인수용의 상관관계(Sheerer, 1949; Phillips, 1951; Berger, 1952; Omwake, 1954; 임전옥, 장성숙, 2012 재인용),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다문화태도와의 관계(하정희, 2015)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자기에 대한 수용적 측면이 타인과 다문화에 대한 수용적 태도로 확장됨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무조건 자기수용과 성평등의식 간에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r=.18, p<.01$), 이는 자신의 성적 정체성에 대한 수용과 만족 정도가 남녀 평등의식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나타낸다(홍기원, 김명소, 한영식, 2003). 그리고 다양성 수용과 성평등의식 간에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r=.29, p<.01$). 이러한 결과는 다양성 수용이 자신과 다른 구성원에 대해 기본적으로 존중하고자 하는 태도를 나타내기 때문으로

성역할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다문화 감수성 및 문화수용에 대해 부적상관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성현란, 2011).

둘째, 무조건 자기수용, 다양성 수용, 성평등의식 각 변인들 간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무조건 자기수용은 5.1%의 설명력으로 다양성 수용에 유의한 영향($\beta=.225, p<.001$)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문화와 태도, 사고 등 다양성에 대한 수용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무조건 자기수용은 4.0%의 설명력으로 성평등의식에 유의한 영향($\beta=.201, p<.001$)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자신에 대한 무조건 수용이 성평등의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다양성 수용은 8.8%의 설명력으로 성평등의식($\beta=.297, p<.001$)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성 수용성은 편견 없는 태도로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공감하고 문화적으로 다른 상황에서 적절하게 상호작용하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요인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김미진, 2010).

무조건 자기수용이 다양성 수용에 비해 성평등의식에 미치는 설명력이 높지 않은 것은 '무조건 자기수용'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양성 수용'과 '성평등의식'에 대

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다. 지나치게 높은 자존감을 지키고자 부정적인 평가 상황을 두려워하여 자신을 수용하거나(Chamberlain & Haaga, 2001) 방어적인 태도를 반영한 것이라면 부적응적일 수 있다(Tompson & Waltz, 2008). 권위주의 성격이 강한 사람의 경우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다문화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하정희, 2015). 성정체성, 자신의 성에 대한 만족, 집단 자존심이 남녀 평등의식에 미치는 영향(홍기원, 김명소, 한영석, 2003)에서도 자신의 성에 만족하는 사람일수록 남녀평등의식이 낮아지는 결과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자신의 성으로 인해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지각하기 때문이다. 성 고정관념을 아무런 평가 없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들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다(조혜자, 방희정, 2004). 따라서 '무조건 자기수용'의 의미를 외적 기준과 평가, 대우 여부에 따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장단점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라 해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무조건 자기수용과 성평등의식의 관계에서 다양성 수용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다양성 수용이 무조건 자기수용과 성평등의식을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142, p<.001$). 이는 무조건 자기수용이 성평등의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때 다양성 수용이라는 매개변인을 통해 성평등의식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무조건 자기수용에 따른 성평등의식을 예측하는 과정에서 다양성 수용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의 연구를 보면 국가 및 사회의 성평등 수준이 높을수록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와 경제적 생산성이 높고 가사분담율과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볼 때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성평등의식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대학생 시기는 사회생활을 하기 앞서 성평등의식을 확립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로 적절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성평등의식 향상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평등의식 향상을 위해 대학생의 심리적 요인에 대한 탐색과 이를 포함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성평등의식 향상 프로그램은 대부분 성평등에 대한 지식만을 전달하는 측면이 강했다. 따라서 일률적이고 일방적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성평등의식 향상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성평등의식 향상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요인을 포함한다면 참여하는 대학생들에게 지식 전달뿐만 아니라 심리적 변화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특히 '무조건 자기수용'은 한 개인이 자신의 가치 평가를 외적 기준이 아닌 있는 그대로 평가하고 수용할 수 있게 한다. 스스로의 장단점을 인식하고 자신을 보다 긍정적으로 인정한다면 타인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다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무조건 자기수용적 태도는 다양성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에도 영향을 주어(하정희, 2015) 사회 통합적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둘째, 성평등의식뿐만 아니라 다양성 수용에 대한 폭넓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앞으로의 사회는 남성과 여성, 남성의 역할과 여성의 역할 구분이 의미 없어지는 문화, 한 사람의 행위가 성 정체성으로 설명되고 개성으로 이해되는 문화, 다양성과 차이가 존중되는 사

회로 변화될 것이다(조주은, 2005). 이러한 사회로의 변화에 따라 성평등의식 프로그램 역시 방향의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 성평등의식 관련 프로그램은 주로 성인지감수성 향상과 폭력예방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성평등의식은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소수자에 대한 편견적, 차별적 태도를 버리고 서로 다른 차이를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수용적 태도에서 성차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타인의 생각과 문화를 존중하는 열린 사고는 특히 사회생활을 앞둔 20대 대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의 우리 사회는 다양한 생각과 문화를 가진 구성원들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구성원을 공존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열린 태도를 배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폭넓은 사고와 태도를 기르고 이를 바탕으로 다름을 수용하고 인정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태도가 바탕이 될 때 성평등의식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속적인 대학생 성평등의식 교육과 연구가 필요하다. 제도적·정책적으로 성평등을 위한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삶 속에서 여성의 차별과 폭력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유는 사람들의 성차별 의식이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조자경(2018)의 연구에 의하면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한 학생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보다 성역할 고정관념이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매년 법정 의무교육으로써 반복되는 동일한 내용의 성평등의식 교육은 학생들의 교육 참여 동기를 낮추게 되어 오히려 그 효과를 낮추게 한다. 교육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대학생들이 고민하고 경험하며 참여할 수 있는 프로

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생의 성평등의식과 특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들이 바탕이 될 때 효과적인 교육 내용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첫째, 이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는 자기보고식 응답 설문지이다. 이러한 설문지는 개인의 지각에 따라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민감한 다양성 수용과 성평등의식의 경우 부정적 반응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질적인 접근이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이 연구의 자료 수집은 강원도 지역 C 대학의 대학생을 대상으로만 이루어져 그 결과를 모든 대학생으로 일반화하는데 제약이 있다. 따라서 다양한 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다면 보다 구체적인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추후 연구에서는 성평등의식에 대한 다양한 변인들과 관련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경미, 최승원, 정인철 (2014). 중학생의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사후반추사고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3(4), 659-673.
- 김금미 (2010). 대학생의 행복과 자아수용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3), 49-73.
- 김수경, 정진경 (2003). 외국생활 경험이 여성의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 성역할 태도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

- 리학회 학술대회자료집, 423-424.
- 김양희, 이수연 (2002). 청소년용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 개발. 여성연구, 63, 136-156.
- 김연미 (2018). 인수합병된 기업구성원의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과 적응수행의 관계에서 다양성 수용정도의 매개효과.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연제, 박계화, 강진희, 김은순, 박계영, 노명인, 김선 (2016). 간호사관생도의 성지식, 성태도, 양성평등의식과 성적 자율성의 관계. 군간호연구, 34(1), 103-115.
- 김미진 (2010).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재인, 곽삼근, 윤덕경, 김태홍, 민무숙, 변화순, 송다영, 유희정, 정현주, 김성경, 임선희, 장혜경 (2007). 성평등정책론. 서울: 교육과학사.
- 박수미, 정기선 (2004).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적 태도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70(1), 5-26.
- 박지혜, 박종대 (2019). 한국문학 읽기를 통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자기긍정성 증진 가능성 연구. 세계문화비교연구, 2019, 67, 5-23.
- 성상현 (2005). 한국 기업의 다양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다양성관리전략, HR제도, 다양성 수용정도와 성과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성현란 (2011). 남편의 성역할 고정관념, 다문화 감수성 및 아내문화수용이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결혼 및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대구경북지역 다문화 가정.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7(2), 219-239.
- 신수진, 최준식 (2002). 현대 한국사회의 이중가치체계. 서울:집문당.
- 심미혜, Endo Yu Mi (2013). 한국인의 성역할고정관념과 성차별의식 및 군복무에 대한 태도.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8(3), 365-385.
- 안신호, 박미영 (2005). 자존감 결정요인: 영역별 능력과 자기수용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4(1), 10-140.
- 여성가족부 (2019). 2018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
- 이경순, 정성진 (2006). 성인의 양성평등 의식, 생의 의미 및 우울간의 관계. 정신간호학회지, 15(1), 14-21.
- 이수연, 김인순, 고재훈 (2018). 개정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 개발II.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슬, 김해란 (2018). 대학생이 지각한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무조건 자기수용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5(5), 101-130.
- 이종일 (2010). 다문화 교육에서의 '다양성'의 의미. 사회과교육연구, 7(4), 105-120.
- 이현미, 하정희 (2015). 완벽주의 성격과 다문화태도와의 관계에서 무조건적 자기수용의 조절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6(9), 5875-5887.
- 이효선 (2014). 대학생 다양성 수용도가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전옥, 장성숙 (2012). 자기수용 연구의 동향과 제언. 인간이해, 33(1), 159-194.
- 정병삼 (2020). 사관생도의 인구통계적 변인, 교육경험과 양성평등의식의 관계: 육군 K사관학교를 중심으로. 여성연구, 104(1) 97-124.
- 조자경 (2018). 대학생 성평등 의식 및 성평등

- 교육 실태조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사업보고서
- 조주은 (2007). 양성평등문화: 양성평등이 아닌 다양성 존중의 문화로, 김기봉 외 (2007). 29개의 키워드로 읽는 한국 문화의 지형도. 서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 조혜자, 방희정 (2004). 자기 긍정성과 성 고정관념: 무엇이 여성에게 우선인가?.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9(1), 181-201.
- 추미례, 이영순 (2014). 무조건적 자기수용 척도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1), 27-43.
- 하정희 (2015). 권위주의 성격 및 무조건 자기수용과 다문화태도와의 관계. 다문화교육연구, 8(3), 133-151.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지수로 본 세계 성평등.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홍기원, 김명소, 한영석 (2003). 성정체성, 자신의 성에 대한 만족, 그리고 집단 자존심이 남녀 평등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8(1), 19-33.
- 한겨레 (2019). “한국, 성평등 수준 108위…전 세계 성별격차 해소에 99.5년 걸린다”. 12월 17일 14면.
- 헤럴드경제 (2018). “남혐·여혐 싸움문제 아니다…성차별 문화구조 개선해야”. 5월 30일 10면.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di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Chamberlain, J. M. & Haaga, D. A. F. (2001).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and psychological health. *Journal of Rational Emotive and Cognitive Behavior Therapy*, 19, 163-176.
- Ellis, A. (1977). Psychotherapy and the value of human being. In A. Ellis & R. Grieger (Eds), *Handbook of rational-emotive therapy*. 99-112. New York: Springer.
- Ellis, A. & Robb, H. (1994). Acceptance in rational-emotive therapy. In S. C. Hayes, N. S. Jacobson, V. M. Follette, & M. J. Dougher (Eds.), *Acceptance and change: Content and context in psychotherapy* (13-32). Reno, NV: Context Press.
- Harrison, D. A. & Price, K. H., Gavin & J. H. and Florey, A. T. (2002). Time, teams, and task performance: changing effects of surface-and deep-level diversity on group functioning.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5(5), 1029-1045.
- Jehn, K. A. & Northcraft, G. B. & Neale, M. A. (1999). Why differences make a difference: A field study of diversity, conflict and performance in workgroup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4(4), 741-763.
- Milliken, J. F. & Martins, L. L. (1996). Searching for common threads: understanding the multiple effects of diversity in organizational group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 1(2), 402-433.
- Rogers, C. R. (1942).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Boston: Houghton Mifflin.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69-1081.
- Thompson, B. L. & Waltz, J. A. (2008).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Mindfulness, self-esteem, and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Journal of Rational-Educational Research Journal*, 16(2), 119-126.

Troper, H. & M. Weinfeld. (1998). Ethnicity, politics, and public policy: Case studies in Canadian diversity, Toronto: Buffal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Wood, P. (2003). Diversity: The invention of a concept. San Francisco, CA: Encounter Books.

1차원고접수 : 2020. 10. 10.

심사통과접수 : 2020. 12. 16.

최종원고접수 : 2020. 12. 30.

JAMS 2.0
Journal & Article
Management System

Influence of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on College Students' Consciousness of Gender Equality: The Mediating Effect of Diversity Acceptance

Kwon young wung

gangnungwonju univers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accepting diversity in the effects of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on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in college students. To this end, a survey was conducted on 723 students (male: 405, female: 318) enrolled in a four-year university. For analysis, the collected data was verified using correlation analysis and a regression analysis procedure proposed by Baron & Kenny (1986), and bootstrapping was performed to verify the significance of the mediating effect.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diversity acceptance, and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Seco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and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the mediating effect of diversity acceptance was partially significant. Finally, the significance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and limitations for subsequent studies were suggested.

Key words :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diversity acceptance,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